

이라고 결의

- 연맹의 총회도 일본의 행동이 자위권이라고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9개국 조약 당사국들의 국제회의 개최를 권고

#### 4) 부르셀 회의(1937년 11월)

- 국제연맹의 권고에 따라 브뤼셀에서 9개국 조약 당사국들의 국제회의 개최
- 일본의 무력에 의한 대중정책이 법률상 근거가 없고, 중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에 의한 적절한 합리적 해결 모색을 촉구

#### 5) 일본 점령지역 확대와 '동아 신질서 구상' 발표(1938년 11월)

- 독일의 주선이 실패하고, 일본은 중국군을 패퇴시키며 중국영토를 지속적으로 점령
- 일본은 중국전역에 대한 점령의지를 드러낸 '동아의 신질서 구상'을 발표 : 일본, 중국, 만주 3국이 하나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체 구성을 제안, 중국의 항일전선을 붕괴시키고 중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 추후 '대동아공영권' 주장으로 확대

### 3. 주요 관련국의 입장

#### 1) 독일

- 독일은 중국에 대한 영토 야욕이 없이 관계개선을 추구하여 왔으며, 일본과는 방공조약을 체결하여 관계개선 하여 왔기에, 중일전쟁 개시에 따라 중일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
- 독일은 중립을 선언하고 패퇴한 중국군의 재건을 도와주는 등의 활동도 하며, 중일 간의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중재는 실패

#### 2) 미국

- 미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면서 영국의 공동개입 제의를 거절
  - 공동개입은 일본군부의 입장을 강화시킬 우려
  - 개입은 영미 양국만이 아니라 극동에 이익을 갖는 모든 나라가 동참 필요
  - 영국의 공동개입 수용 시 미국내 고립주의자의 반대 초래 가능성
-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중국점령 계속과 괴리정권 수립 그리고 '동아의 신질서 구상'에 대응하여, 중경정부(장개석)를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고 항일전을 지원하기 시작

#### 3) 소련

- 중소양국은 1927년에 국교단절 상태에 놓였으나,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군사적 압력에 공동우려 하며 1932년에 국교를 재개, 그러나 소련이 만주국에 우호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계개선은 한계에 놓임
- 1937년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불가침조약 체결, 즉 제3의 침략국을 지원하거나 유리하지 않게 함, 이후 소련은 중국의 공군 강화를 위한 군사원조와 소련 공급 물자 구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 4. 국제정치사적 의의

- 1) 일본이익의 관심이 만주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표출
- 2) 유럽국가들의 유화정책, 독일과 이탈리아 등 방공협정국가들의 지원, 미국의 고립주의적 불간섭 노선의 산물
- 3) 중국내 정치적 파당들의 항일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계기로도 작용
- 4) 현상타파적 정책 추진하는 일본에 유럽국가와 미국이 대항하는 계기로도 작용

## 2-14 태평양전쟁(1941. 12 ~ 1945. 8)

### 1. 태평양전쟁 전의 국제정세

#### 1) 중일전쟁 발발(1937년 7월)

- 1937년 노구교 사건, 랑방 사건으로 중일전쟁 개시
- 중일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일본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미국이 통제하자, 일본이 연합국의 아시아 식민지로 남방정책을 펼치고, 이것이 미국의 이해관계 침해하면서 발생

#### 2) 제2차 세계대전 발발(1939년 9월)

- 1939년 9월 독일은 폴란드 침공, 이후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점령
- 독일의 승전에 따라 동맹국이었던 일본은 패전국들의 아시아 식민지에 팽창 정책을 시도

#### 3) 일본의 남방정책

- 1940년 7월에 미국이 조일통상조약을 일반적으로 파기하자, 군수품조달에 불안은 느낀 일본은 중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남방자원을 획득하고자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식민지에 접근 시작
- 일본은 프랑스, 네덜란드에게 식민지역의 군수물자나 원료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정물자와 지정량을 일본에 수출할 것을 요구

#### 4) 일본-독일-이탈리아의 3국동맹(1940년 9월)

- 일본은 중국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및 이탈리아와 동맹을 체결
-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가 새로운 유럽질서 주도에 동의,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본의 '동아 신질서 구상'에 동의
- 일본은 3국동맹이 일본의 미국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는 결과 초래

#### 5) 일소 중립조약(1941년 4월)

- 독일은 소련을 3국동맹에 가입시켜 4국동맹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실패, 이에 히틀러는 소련과의 협력 거부를 선언하는 한편 일본과 소련의 관계정상화에 반대
- 일본은 독일과 소련의 충돌 시 개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소련과 중립조약을 체결, 소련도 독일과의 전쟁 시 양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립조약에 동의
- 3국동맹과 일소 중립조약은 일본이 대미 강경책을 취한 하나의 배경요인

### 2. 태평양전쟁 전의 미일관계

#### 1) 중일전쟁과 미일관계

- 중일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유화책에 가까웠음
- 일본이 9개국 조약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

하지는 않음

- 중국이 독립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우려, 중국을 적당히 분할함으로써 일본의 관심을 소련쪽으로 돌리려는 의도, 그러나 미국의 유화책은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는 빌미를 제공

## 2) 미일통상조약 폐기(1940년 7월)

- 일본의 중국침략 계속에 따라 미국 의회 내에 대일금수조치 취하자는 강경파 강화되었으나, 대일 유화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공화당의 미일통상조약 폐기안이 대통령의 지지로 승인
- 1940년 7월에 동조약의 폐기를 일본에 통고

## 3) 일본의 남진과 미국의 입장

- 미일통상조약 폐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략물자 수입이 계속 가능하였지만, 일본은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남방진출에 박차
-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통상조약을 폐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특권을 주장, 또한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출도 도모
- 1940년 6월 일본은 대동아신질서 구상을 발표

## 4) 대일금수조치

- 독일에 항전을 결정한 영국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대일본 전면금수조치를 취하거나 극동에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일본을 미영축에 가담토록 유인할 필요성을 미국에 제시
- 미국은 강경, 유화 중 양자택일을 보류하고, 동남아의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를 면로주의의 적용범위로 설정, 국방강화법을 적용하여 몇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제 지정, 금수 조치는 아니고 허가제인 상황 하에서 미국의 유화책으로 일본은 1940년 9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주

## 5) 삼국동맹 체결과 미국

- 1940년 9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미국을 가상적으로 하는 3국동맹 체결
- 독일은 영국의 강한 저항이 미국 지원 때문으로 보아 일본이 미국을 견제하도록 참전시키면 유럽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할 것으로 기대
- 미국은 일본에 대한 유화책을 계속하면서 영국의 승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영국 지원을 선언

## 6) 미일교섭

- 일본의 남진으로 미일관계가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일본도 궁극적 침략목표인 소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력충돌 회피 가능성 모색
- 미일양해안 : 민간 차원에서 작성된 7개의 양해안 등장, 즉 분쟁의 평화적 해결, 3국동맹은 방어적 성격 인정, 미국의 유럽전쟁 불참, 중국의 독립과 중국에서 철수, 중국에의 일본의 대량이민 자제, 만주국 승인, 태평양에 상대국 위협하는 병력배치 자제, 남태평양에 일본의 평화적 진출과 지원획득에 대한